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최 금 춘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보상대책위원회)

대표 여러분!

구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만행사실이 우리 민족과 아시아 민중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된 때로부터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고, 우리 북과 남의 여성대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여성 대표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한 때로부터도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회의와 토론회들에 여러번 참가한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해방 50돐이자 곧 일제의 패망 50년이 되는 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가 소집된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의에 참가하는 회수가 늘어갈수록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거듭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데 대하여 안타까움과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일본당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인류역사의 갈피마다에는 크고 작은 전쟁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때마다 침략자들에 의하여 감행된 반인륜적 범죄사실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구 일본군이 20여 만에 달하는 조선여성들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여러 나라 여성들을 상대로 감행한 그러한 범죄행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일제에 의하여 감행된 일본군 '위안부' 만행은 그 범죄의 성격과 가혹성, 기간과 규모, 그것이 미친 효과로 볼때 보통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도 끔직한 전대미문의 만고대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2차 세계대전시기 대국들에 의하여 감행된 범죄행위들이 거의가 청산된 오늘에 와서까지 일제가 저지른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아직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가 소집되고 회의에서 일본정부의 민간기금안을 왜 반대하는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기본의제로 상정하고 토론하는 것은 매우 의의있고, 시기적절한 것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본 토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이제 더이상 늦출수 없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 안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선민족과 아시아 여러나라 민중들과 여성의 존엄을 되찾고 회복하는 문제이며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가슴에 서려있는 피맺힌 한을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금년은 일제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제사회는

올해를 인류사의 한 시기를 총화하고 새 출발하는 해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30년대, 40년대 일제에 의하여 저질러진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이 해를 넘기지 말고 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공정하게 원칙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다시는 그러한 비극적인 수난자로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책임적인 문제입니다. 과거에 저질러진 범죄행위에 대하여 똑똑히 결산하는 것은 치욕의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더우기 일부 세력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행위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 청산을 바로 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범죄보다 더한 범죄를 새롭게 추동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던 생존자들의 처지로 볼때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하며 여기에서 어떠한 양보나 주저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바와 같이 지금 얼마 남지않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은 70-80 고령으로서 인생말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며 더구나 청춘시절에 일제에게 당한 학대로 인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미 폐인이 되었거나 문전출입이나 겨우 하는 장기적인 병약자들입니다. 그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피해당사자이며 역사의 중견자인 그들이 살아있을때 똑바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과 아시아 여러 나라 민중들의 공동된 지향이며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저절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백일하에 드러난 역사적 사실까지 전면 부정하면서 철면피하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일본당국에 스스로 옳바른 과거청산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조선민족과 아시아 나라 민중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벌려 나가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제의 과거 죄행을 계속 전면적으로 폭로, 단죄하며 피해를 당한 아시아의 모든 나라 여성들과 민중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떨쳐 나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몇몇 '위안부' 생존자나 그 유가족들 또는 어떤 특정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이익과 존엄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북과 남, 그리고 아시아 나라 민중들 속에는 자기가 당한 수치와 모멸감 때문에 피눈물나는 과거를 숨기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시기 일본 당국의 강요에 의하여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과 '위안소' 관리에 참가하고서도 자기의 뗏뗏치못한 과거를 세상 천지에 밝히지 못하는 일본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맞게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범죄 행위의 진상을 계속 파헤치고 역사의 심판에 제소하는 활동을 더 과감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를 숨기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대담하게 일제의 과거 죄행을 세상에 고발하도록 하고 모든 나라 민중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 대중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와 아시아 나라 민중들과 여성들이 전시 죄행을 회

피하며 합리화하려는 일본 반동들의 부당한 제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는 것입니다.

전시에 식민지 나라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 납치하여 일본군 '위안부'로 전락시키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고안해 낸 당사자도, 또 이런 비인도적인 민족말살 행위를 직접 집행한 자들도 다름 아닌 일본 침략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범한 범죄 행위의 전모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일본 당국은 지금 이 시각에도 그것을 역사와 인류 앞에 스스로 자백하고 공정한 심판을 받을 대신 온갖 술책을 다하여 그 책임을 모면해 보려고 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 여성들과 각계층 민중들은 일본 정부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성실히 사죄하며 보장하지 않고서는 더는 배겨내지 못하도록 사면판방에서 압력을 가하는 활동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는 자기 나라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맞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항의 요청 투쟁, 서명 운동 등 여러 가지 투쟁을 벌리는 한편 일제의 전시 만행을 폭로하는 영화감상회, 사진 전시회, 출판물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끊임없이 조직,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전 일본군 '위안부'들과 그 관계자들을 일본 정부 당국에 보내어 담판 투쟁, 항의 농성 투쟁을 벌리는 것은 일본에 커다란 압력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과 그 산하 기구를 비롯하여 국제기구들에 일제의 과거 죄행을 제소하고 일치한 행동으로 일본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나가도록 하는 사업도 계속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당면하여 모든 유관국들이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민간기금안'의 기만성을 폭로 배격하고 그것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나가는 데 힘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공정하고도 철저한 해결을 위하여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일본 당국은 아시아 나라들과 체결한 쌍무협정에 의하여 이 나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장애하는 이러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진심으로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북과 남의 각계층 민중들이 일치단결하여 일제의 과거 죄행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북과 남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단체들이, 나아가서 아시아 여성들과 단체들이 연대 투쟁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투쟁의 위력은 단결에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 여성들과 여성 단체들, 각계각층 민중들이 과거 청산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려 세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은 하나의 공동 투쟁으로 지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일본 정부 당국이 지난 날의 범죄 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며 충분한 보상을 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도로 됩니다.

우리는 아시아 나라 여성들과 민중들의 투쟁을 공동된 하나의 목표로 지향시키고 그 투쟁을 한 단계 끌어 올리기 위하여 공동의 투쟁 조직을 발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동 투쟁 조직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위원회'라고 명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연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있는 모든 나라의 관련 조직 대표들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 대표 여러분들이 우리의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서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토론된 바와 같이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옹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앞 길에는 여전히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며 머지 않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해결되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이번 '제 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가 조선 해방 50돐이 되는 올해 안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는데 응당한 기여를 하게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